

소록도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소록도라 부른다.

예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한센병 환자와 병원 직원들만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거금대교

거금도

조선시대 고흥 도양목장에 달린 섬으로 '절이도'라고 불렸다. 정유재란 때 충무공이 대승을 거둔 '절이도 해전'의 그 현장이다. 적대봉에 큰 금맥이 있어 거역금도라고 부르다 줄여서 거금도가 됐다고 전한다. 거금도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고 한다. 원래 국내 섬 중 7번째로 컸는데, 다른 섬들이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면적을 넓혀 지금은 10번째로 밀려났다.



금장해수욕장



금의시비공원



오천몽돌해변



오천항

거금도 둘레길 : 3코스(모자이크길)

4.1km(2시간 30여분)

구간 : 금진마을~동촌마을

청원고 국토순례
Made by 2210 변선도

소록도TMI

-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때 지어진 곳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생체실험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소록도자혜병원'으로 설립되었다,
'소록도갱생원', '국립나병원' 등 여러 이름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 주민은 한센병환자와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이 대부분이다,
 - 취락은 주로 북동쪽 해안가에 집중 분포하며, 병사지대와 직원지대로 구분된다,
- 한센병 : 나균(그람양성간균, 결핵균과 닮음)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감염질환으로 피부에 궤양이 생겨 피부가 벗겨지고 녹아내리는 병이다, 예전에는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불리웠지만 지금은 한센병으로 불린다,
한센이라는 말은 한센병에 기여를 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거금도TMI

- 양식업이 활발한데, 김 양식은 대규모로 행해진다,
 - 문화재로는 대흥리에 있는 조개더미가 대표적이다,
 - 당산제, 월포농악 등 민속놀이가 잘 보존되어 있다,
 - 거금대교 :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총 길이 2028m, 높이 167.5m 위층은 차도이고 아래층은 자전거 혹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다, 다리 중앙에는 주탑 2개가 있어 이를 통해 케이블로 연결된 사장교 형태이며, 주탑 사이 거리는 약 480m에 달해 선박이 교량 아래로 드나들 수 있다,
- 2011년 12월에 개통한 길이 6.67km 세계 최초 번들형 5경간 연속 사장교로서 소록도체험 견학과 나로도 우주산업 및 관광 기능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차량과 자전거 · 보행 도로 2층 복합 와렌트런스 교량으로 거금대교의 상품성을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종전에는 녹동항에서 거금도까지 배편으로 30분이 소요되었으나, 다리의 개통으로 약 5분으로 단축되어 섬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